

# 기말 과제 : 노블코믹스 각색

미디어 기술 콘텐츠  
201620807 안창신

레퍼런스 작품 모색

각색 작품 : <변경백 서자는 황자였다.> 카카오 페이지 / 기준석  
기준 : 원작소설 1화 ~ 3화

캐릭터 분석

<주연>

이름 : 이안 베로시온 (주인공)

생김새

1. 빙의 전) 외모는 작가님의 의견 필요. 다부진 몸을 가지고 있어야할 듯 하다. (마법사의 체력과 마력은 비례하기 때문)
2. 빙의 후) 금발 머리의 압생트 색 눈동자를 가진 깔끔하고 잘생긴 외모이다. 웹소설 표지 참고. (차은우 배우 같은 느낌). 용모는 전체적으로 밝은 금빛 느낌이다. (+차분함이 드러나는 외모)

성격 : 침착하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당황하지만, 이 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답을 올바르게 내릴 수 있다. 또한 상당히 계산적이다. 빙의라는 과정을 거쳤으나 이전과는 환경에서 자신이 해야 할 행동을 계산하여 의심없이 행동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자신의 의도대로 상황이 진행되도록 행동한다.

추가설명

1. 빙의 전) 어린나이에 마법으로 황제가 된 천재이지만 황제가 된 지 3년도 되지않고, 성년이 되기 전 머리가 잘려 죽는다.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선한 황제였다.
  2. 빙의 후) 데르가 백작이 평민을 겁탈하고 얻은 자식으로 빙의가 되는데, 원래 몸의 주인은 데르가 백작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상당히 머리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묘사된다. '황제 이안'이 빙의가 된 이후 지금껏 황제로서 배워온 예절과 지식으로 살아남고자 한다.
- 원작 반영 후 생김새의 디테일 추가
  - 성격과 생김새 매칭

이름 : 데르가 백작

생김새 : 올백한 검붉은 색 머리에 팔자 주름, 4~50대의 중년 남성정도로 묘사하며, 눈동자의 생기를 없애 냉철한 느낌을 강조한다. 용모는 이안과 반대되는,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을 사용한다. 조금 살집이 있다. (영화 '마약왕'의 송강호 배우 느낌)

성격 : 냉철하고 자비없는 인물로 묘사된다. 빙의 전의 이안을 천민을 겁탈해서 낳았고, 그런 이안을 천려족의 화친의 제물로 넘길 생각을 할 정도로

차갑고 잔인한 마음을 지녔다. 이안에게 보여지는 태도는 완고하며 상당히 계산적인 인물로는 보이나, 그 계산이 좋지 않은 결과들을 불러오는 느낌이다.

추가설명

1. 변경백의 영토이자 브라츠가의 백작이다.
2. 계산을 하며 행동하지만 이안의 생각에는 미치지 못할 정도이다.
3. 이안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고 있으며, 의심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름 : 몰린 경

생김새 : 노인 임과 동시에 신사느낌이여 깔끔히 정리된 수염이 있다. 느긋한 미소를 짓는 실년의 캐릭터이며 이따금씩 이안을 볼 때 눈을 날카롭게 뜨며 이안을 바라본다. (용모는 애니메이션 '스파이 패밀리'의 '헨리 헨더슨' 참고, 눈매는 애니메이션 '강철의 연금술사 브라더후드'의 '린 야오'같은 느낌)

성격 : 느긋해 보이는 성격을 지녔으나,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계산을 하는 듯한 묘사가 나타난다. 이안에 대해 흥미와 동시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묘사되며 브라츠가의 가문 사람들 앞에서는 느긋하고 침착한 모습을 유지한다. 미소와 웃음을 가면처럼 쓰고 있는 듯이 보인다.

추가 설명

1. 황궁, 중앙처에서 내려온 관리직이며 나이가 있는 노인신사의 모습이다.
2. 이안이 브라츠 백작가에 입적할 자질이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브라츠가를 방문한다.

<조연>

이름 : 크로니

생김새 : 이안보다는 20살 많은 용모로 40대 중후반 정도의 외모. 어두운 색 계열을 많이 사용해 이안과 대비되며 악역임을 알아볼 수 있게 설정한다. 단, 메인빌런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에 이용당하기 쉬운, 생각이 단순하게 생긴 외모로 각색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영화 '라이온 킹'의 '스카' 캐릭터와 웹툰 '삼국지특'의 '조비' 캐릭터 참고)

성격 : 잠시 등장하지만 상당히 화가 많은 듯 하며 이안을 비난하는 것으로 성격이 좋아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화에 따른 폭력을 이안에게 많이 휘두른다.

추가설명

1. 어지럽게 꼬인 족보땀에 이안보다 20살 많은 조카이자 황제가 된 이안을 질투해 이안을 살해하는 인물이다.

이름 : 메리 부인

생김새 : 이안을 괴롭히는 괴팍한 성격으로 귀족이기는 하나 그 행동거지가 감질하는, 인성이 나쁜 여인으로 보여야한다.

(‘해리포터 -마법사의 돌-’ 중 해리포터의 이종사촌인 ‘피튜니아 더즐리’ 배역 참고)

성격 : 사치를 하는 듯한 묘사와 동시에 이안을 천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귀족으로서의 행패를 부리는 좋지 않은 성격으로 보인다.

추가설명

1. 자신의 아들인 첼은 아끼지만, 이안에 대한 태도는 좋지 않다.

이름 : 첼

생김새 : 메리 부인과 같이 인성이 좋지 않으며 뚱뚱한 용모로 묘사된다.

성격이 나쁜 부잣집 도련님 느낌을 줄 수 있는 외모로 보여져야한다.

(‘해리포터 -마법사의 돌-’ 중 해리포터의 이종사촌인 ‘더들리 더즐리’ 배역 참고)

성격 : 어미인 메리 부인과 성격이 비슷하지만 좀더 아이같은 성격이 포함되어있다. 귀족으로서의 행패를 부리기는 하지만, 아이같이 때를 쓰는 것처럼 묘사되며 겁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잘난 척을 하고 싶어하는 성격이기도 하다.

추가설명

1. 빙의한 이안의 배 다른 형제이며, 데르가 백작의 첫째 아들이기도 하다.
2. 하인에게 감질과 이안에게 폭언 등으로 보았을 때 인성이 나쁜 것으로 묘사된다.

이름 : 해나

생김새 : 착하고 눈물이 많은 점, 주인공의 말을 잘 듣는다는 점에서 순진난만한 아이의 모습이 묘사된다.

성격 : 자신의 말은 바를 열심히 하며, 착한 성격인 것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걱정이 많아 울기도 하면서도 이안의 상황을 걱정하기도 한다.

추가설명

1. 브라츠가의 하녀 중 한명이며 나이는 빙의 후 이안과 또래인 어린 아이로 묘사된다.
2. 빙의 전의 이안에게 심부름을 하고 음식을 심부름 값으로 받아 동생들 가져다 먹이는 고운 심성의 아이.

이름 : 맥, 드고르

생김새 : 귀족, 중앙처의 관리라는 귀족적 이미지와 더불어 호탕한 느낌이 잘 들도록 묘사되어 한다. 하지만 마냥 호탕한 것은 아닌 노련함은 있어야 한다. 노련한 미중년의 느낌이 나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영화 '다크 나이트'의 '브루스 웨인' 참고)

성격 : 호탕하며 웃음이 많은 것으로 묘사되는 인물들이다. 그렇지만 대화 속에서 이안을 시험하는 내용을 의도할 만큼 몰린 못지않은 계산적인 인물들로 추측된다.

설명

1. 몰린과 같이 온 중앙처의 관리들이다.
2. 몰린과 같이 이안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인물들이다.

---

각색 포인트(구체적인 대안)

1. 판타지장르임과 동시에 정치, 경제, 사회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듯한 내용이 많기에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각색을 해야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어떻게 쉽게 할 것인가?)
2. 원작에서는 귀족이 가져야하는 예절과 예의가 상당히 강조된다. 특히 이안이 빙의 전 황제인 점을 고려하여 노블코믹스에서는 그럼체를 이용해 고풍스럽고 귀족적인 이미지를 잘 담아내고자 한다. (어떻게 강조되어야 하는가?)
3. 전체적으로 읽는 느낌은 어둡고 무거운 느낌을 주로 다루되, 중간 중간 독자들이 쉬어갈 수 있는 가벼움을 담아내야한다.

4. 주인공의 독백이 많기 때문에 클로즈업 장면을 많이 활용, 주인공의 생각이 강조되도록 하며 함께 설명 가능한 그림을 덧붙인다.
5. 최대한 대화 혹은 이안의 독백을 통해서 세계관 및 작가님의 설명을 전달하되 그게 안될 시 적절하게 판단하여 전 후에 배치, 스토리의 흐름이 깨지지 않도록 한다.

<트리트먼트>

회차	내용	원작 페이지
프롤로그	<p>잔혹동화같은 인형극으로 이안의 빙의 전 이야기가 나타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황제였던 이안</li> <li>2. 하지만 이안을 질투한 크로니에게 머리가 잘려 사망함.</li> </ol> <p>잘려나간 이안 인형의 머리가 떨어져 빙의 후의 이안의 손의 떨어짐 인형의 머리를 받은 이안이 성장한 모습이 나타남. 이안이 뒤를 돌아 빛이 나오는 호수를 걷는데, 호수에서 이후의 벌어질 일들이 나타남. 이안이 다시 황제가 되어 왕좌에 앉는다.</p>	
	<p>잔혹동화 풍 인형극을 통해, 판타지 장르임과 동시에 빙의 전의 이야기가 암울하다는 것을 암시. 인형의 머리를 받은 이안을 통해 빙의물 소설임을 표현. 호수에 비친 내용을 통해, 앞으로 벌어질 일 예측.</p>	
1화	<p>브라츠가 뒤돌의 식탁에 앉아있는 이안, 지금이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되지 않는다. 지하감옥에 갇힌 이안은 크로니에게 폭행당하는 중이다. 이안보다 20살 많은 조카인 크로니가 왕위를 질투해 벌인 일에 이안은 회의감을 느끼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듯 하다. 하지만 어디선가 나타난 나옴이 이안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이안은 나옴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옴은 자신을 희생하며 이안을 구하려 한다. 그러던 중 크로니가 들어와 이 모습을 목격한다. 나옴은 이안을 지키려 하며 시공간을 비트는 영속의 저주를 시전한다. 결국 크로니가 이안의 목을 베는데 성공하지만, 이안은 나옴의 마법으로 빙의가 된다. 마법은 성공하지만, 브라츠가의 뒤돌 식탁으로의 갑작스러운 이동에 이안은 당황하는데.</p>	1화 1~10쪽 후반부
	<p>1화의 전체적인 내용을 담으며, 이안이 처한 상황을 담는다. 마력과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 이안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한다. 대화의 순서 및 내용 일부 변경.</p>	
2화	<p>이안은 당황하지만, 우선은 진정하기로 하고 눈앞의 스테이크를 먹는다. 이안은 자신을 칭찬하는 몰린과 데르가의 대화를 통해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분석하기 시작한다. 몰린이 이안에게 철학 질문을 하고, 현 이안의 아버지이자 백작인 데르가가 대답을 피하려한다. 하지만 데르가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안이 대답을 잘 해내고, 이후 몰린과 데르가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는 이안은 빙의한 몸이 친려족과의 화친을 위한 제물임을 알게된다. 이후 자신의 상황을 알게된 이안은 미래를 위해 우선은 자연스럽게 행동하기로 한다. 디저트 시간이 되고, 메리 부인의 명으로 첼과 이안은 응접실에 둘이 남게된다. 첼은 이안에게만 관심이 가는걸 질투하고, 둘만 남은 상황에서 들어온 하인에게 화풀이를 한다. 이안이 이를 중간에서 막자 첼이 이안을 협박하지만, 둘인 상황을 이용해 이안은 자신의 마력을 보여 겁을 준다. 첼을 겁주고 갑작스레 들어온 몰린과 이안은 순간적으로 눈이 마주치고 마는데...</p>	1화 10쪽 극후반, 2화 1~10쪽, 3화 1~9쪽.
	<p>각 캐릭터간의 대화 변경 및 축소. 첼과 메리 부인의 비중 축소. 이안의 독백 증가. 캐릭터의 대화간에서 알 수 있는 정보 외 다른 정보는 우선 삭제. - 제 3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대화의 흐름에 맞지 않다고 판단.</p>	

- 차후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도록 변경.
-------------------------

<프롤로그 각색>

\*15~23컷 미정, 작품 파악 마저 완료한 후 내용 삽입

\*밑줄 친 부분은 작가님의 의견, 작품 파악, 연출 등등의 이유로 수정해야 할 부분 체크

\*왜 프롤로그를 넣었는지 설명 추가

\*복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

중점 : 인형극 연출 사용,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을 아우르는 컷 삽입

#1. 검은 배경

1컷) 인형극 동화의 커튼이 좌우로 걸쳐있다.

인형극 배경은 기본적으로 잔혹동화의 그림 같다. 성 내부 알현실이 그려져있다. (주로 사용되는 색을 거친 느낌으로, 인형은 봉제 인형으로 설정하여 잔혹동화같은 느낌을 준다.)(이안 황제를 본따 만든, 왕좌에 앉아있는 인형을 중앙에 배치한다.)(나레이션 말풍선의 테두리는 고풍스러운 느낌)

대사) 나레이션 : “옛날 옛날 한 황제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사) 나레이션 : “황제님은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2컷) 인형극 동화의 커튼이 좌우로 걸쳐있다.

인형극 배경이 왕의 집무실 그림으로 바뀐다.

이안 황제를 본따 만든 인형을 중앙에, 신하들을 본따 인형을 이안 황제 인형 좌우로 2개씩 배치한다.

대사) 나레이션 : 황제님은 충신들과 백성들을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우측 상단)

대사) 나레이션 : 백성들은 그런 황제님을 사랑하였습니다.(좌측 하단)

3컷) 인형극 동화의 커튼이 좌우로 걸쳐있다.

인형극 배경이 밤시간의 성과 마을 그림으로 바뀐다.

인상을 찡그린 크로니의 인형을 중앙에, 후드를 쓴 인형을 좌우로 2개씩 배치한다.

대사) 나레이션 : “하지만 모두가 황제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사) 나레이션 : “황제님의 조카는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4컷) 인형극 동화의 커튼이 좌우로 걸쳐있다.

인형극 배경이 지하감옥으로 바뀐다.

인상을 찡그린 크로니의 인형이 팔이 묶여 앉아있는 이안 황제인형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고, 그 사이에 나옴 인형이 이안 황제 인형을 안고있다.

대사) 나레이션 : “황제님의 조카는 황제님을 계략에 빠트렸습니다.”

대사) 나레이션 : “황제님에게 위기가 찾아왔지만 충신은 황제님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5,6컷) 인형극 동화의 커튼이 좌우로 걸쳐있다.

인형극 배경이 지하감옥 그대로이다.

인상을 찡그린 크로니의 인형의 칼이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엑스트림 클로즈업 된다.

대사) 나레이션 : “황제님의 조카는 결국 황제님에게 검을 휘둘렀고”

대사) 나레이션 : “황제님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검은 배경에서 별이 있는 우주의 공간처럼 바뀌간다.

7컷)이안 황제 인형의 목이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장면.

대사) 나레이션 : “이야기 끝?” (떨어지는 인형의 목의 배경글로 배치한다.)

8,9컷) 공손히 모은 손이 엑스트림 클로즈업으로 컷을 채우고, 떨어진 인형의 머리가 손에 떨어지도록 연출한다.

(컷 테두리는 따로 없이 밝은 호수 바닥과 배경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호수 위, 별빛이 가득한 공간.

10컷) 빙의 후의 어린 이안이 손바닥이 보이게 손을 모으고 있고 손 위에는 인형의 머리가 있다. (측면 전신 샷)(호수에 반사된 이안의 모습은 환생 전의 이안)

- 빙의 전과 후의 모습이 불명확, 확실히 다른 모습이면 빙의인 것처럼 표현하려는 의도를 보일 수 있지만, 비슷한 모습이면 과거로 회귀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음.
- 대사를 추가하여 빙의 됨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방법이 있다. 이는 차후 고민

11컷) 인형의 머리에서 빛이 나며 이안을 감싼다. (정면 상체 샷)

12컷) 빙의 후의 이안이 성장한 모습으로 밝은 빛이 반딧불이 처럼 이안의 주위를 감싸듯 퍼진다 (이안은 눈을 감고 있음)(정면 상체 샷)

13, 14컷) 이안이 감은 눈을 서서히 뜨는 것을 익스트림 클로즈업, 눈동자에 황금색과 압생트 색이 그라데이션 효과로 공존하고 있다.(이안의 복장은 황제복으로 바뀜).

15컷) 이안이 뒤를 돌며 황제 복과 머리카락이 휘날림. 휘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미소가 은연히 보인다(상체 측 후면샷으로 뒤를 도는 모습이 역동적으로 보이도록 묘사)(이안의 뒤로 열린 문같은 공간에서 밝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다)  
대사) 이안 :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독백처럼)

16 ~ 24컷) 호수 위를 걸어가는 이안이 밝은 빛이 나오는 곳으로 향한다. 물결이 생기고, 휘날리는 황제 복 뒤로 여러 컷이 나타남(원작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담은 컷을 호수 아래에 비친 듯이 표현)(직각으로 내려다 보는 하이 앵글 샷)(23컷이 걸어가는 이안, 나머지가 원작 내용)

- 삽입해야할 컷들과 컷에 넣어야할 대사들은 아직 미정, 작품 중 중요한 장면 1컷들을 삽입 예정

25컷) 빛이 새어나오는 문앞에 도달한 이안, 문의 안쪽으로 걸어간다. (후면 전신 샷)(이안의 옷이 휘날린다)

- 문에 들어가는 후면 전신샷 아니면 걸어 들어가는 발을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할지 미정.

#밝은 빛 사이

26 ~ 29컷) 밝은 빛 한가운데서 이안이 다시 뒤를 돈다. (25컷은 상체 정면 샷)(다른 컷은 이안을 보는 다각도로 한컷씩) 25컷을 중앙에 나머지 컷들은 25컷 주변에 배치한다)

#왕의 알현실

30컷) 빛뿐이었던 주변이 왕의 알현실로 바뀐다. 이안은 왕좌에 다리를 꼬고 앉는다.

31컷) 이안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며, 이안이 미소를 띄고 있다. (전신 샷)

- 25~30컷 :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으며, 이안이 다시 황제가 되는지에 대해 작가님 의견이 필요함.

#흰색 배경

32컷) 스크롤을 내리면 대사만을 담고 대사의 테두리는 따로 없다.

대사) 이안 : "난 다시 돌아온다."

- 이 부분이 회귀인지 빙의인지 헷갈리게 할 수 있고, 이안이 황제가 다시 되는지에 대해 아직 모르기 때문에 차후 수정

33컷) '변경백 서자는 황제였다.' 제목 삽입.

<프롤로그 끝>

---

<1화 각색>

중점1 : 마력에 대한 간략한 설명정도는 들어가야하며, 이안이 빙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는다.

중점2 : 빙의 전 이야기를 빙의 후의 이야기를 이후에 약간 배치하여 이 웹툰이 빙의물임을 독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중점 3 : 이야기가 시작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웹소설 1화 분량을 웹툰 1화 분량으로 설정,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다룬다.

1컷) 마법사에 대한 설명 (양피지 배경)(마법사 실루엣 그림)

대사)

말풍선 (1) : 마법, 신이 남긴 흔적이라 할 정도로 숭고한 힘

말풍선 (2) : 바리엘 제국 전체에서 백명이 될까 말까할 정도로 소수인 존재.

말풍선 (3) : 그렇기에 수가 많은 천민 출신에서 나타났던 존재.

2컷) 이안의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있다. 손을 모은 곳에서는 황금빛 빛이 이안을 감싸 듯 퍼져나가고 있다.(검은 배경)(상체 흉부 샷)

대사)

말풍선 (1) : 하지만 이안은 최초의 귀족 마법사였다.

말풍선 (2) : 이는 대제국인 바리엘에서도 처음 나타난 이례적인 일,

말풍선 (3) : 이 마법이 이안을 황제로 만들어주었다.

3컷) 검은 배경에 글귀

글귀) 이안은 소년의 나이로 황제에 올랐다. 그리고 성년이 되기 전 목이 베였다.(절망적인 느낌의 폰트)

\*여기서 스크롤을 내리면 검은 배경이 흰 배경으로 바뀜

4컷) 말풍선이 나오고 흰색 배경은 5컷의 그림과 이어짐

대사) 말풍선 : '그래 베였을 것이다. 근데 이게 무슨...?'

# 1. 브라츠가 뒤뜰 정원 식탁

- 베르사유 궁전 뒷 편의 공원 중 일부를 축소한 것 같이 꽃들로 장식된 화려한 느낌을 준다.
- 식사중인 식탁이기에 화려한 음식들로 구성, 프랑스 음식과 화려한 식기로 가득 채워져 있다.

5컷) 빙의 한 이안이 식탁에 앉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다. (앉아 있는 상체가 보이도록 정면 상체 샷)

6컷) 이안의 뒷통수, 이안의 앞에 켈, 메리부인, 데르가, 몰린 경이 앉아있다.(세로로 길게 배치? 혹은 대각선으로 배치?)(데르가는 조용히 식사, 메리부인은 이안을 부자연스러운 미소로 내려보고 있고, 몰린은 데르가를 향해 무언가 말하는 듯한 자세, 켈은 이안 쪽을 보며 비웃고 있다.)

(식탁은 원형, 자리의 배치는 시계 방향으로 데르가 - 메리부인 - 켈 - 이안 - 몰린 - 데르가 순으로)

7컷) 흰색 배경에 말풍선만 (흔들리는 느낌의 폰트와 말풍선)

대사) 이안 :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건가...?

\*여기서 스크롤을 내리면 흰 배경이 다시 검은 배경으로 바뀜.

#2. 지하감옥

8컷) 하이 앵글로 지하감옥을 비추고 거친 숨소리가 지하감옥에 울려퍼지고 있다. (시궁창처럼 더럽고 어두운 느낌)(창살은 녹슬어 있고 곰팡이가 피고 있는 좋지못한 환경)

9컷) 빵을 때리는 소리가 말풍선 없이 검은 배경에 먼저 나타남(강하고 거친 느낌의 폰트)

효과음) '짜악'

이후 검은 배경과 이어져 정면 전신 샷으로 쇠창살 뒤로 이안 황제가 양팔이 Y자로 묶여 빵을 맞아 고개를 돌린 상태, 이안 황제 위로 좁은 틈의 창문이 있고 그 사이로 달빛이 들어오고 있다. 이안의 앞에는 빵을 때린 크로니의 뒷모습이 보인다.(대각선으로 풀샷)(이안의 상의가 찢어져있고 그 사이로 다부진 몸의 확대당한 듯한 상처가 보인다. 얼굴에도 상처와 피가 있다.)

10컷,11컷) 이안이 고개를 돌린 것 처럼 크로니를 바라본다. 크로니가 몸을 숙여 이안과 눈높이를 맞추고 있다. (두 컷 다 측면 클로즈업)(둘이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효과음) 이안 : '확'

대사) 크로니 : "불쌍한 이안숙부, 그러니 제 말을 듣고 황제를 거부하셨으면 이런일 없었을 텐데."

11컷) 이안이 생각하는 장면 (크로니를 바라보는 이안의 얼굴을 정면 클로즈업)

대사) 이안(독백) : '크로니...,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나의 조카. 결국 목적은 황제의 자리였나...'

12컷) 크로니가 이안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자신의 얼굴쪽으로 잡아 당긴다. 이안은 아픈 표정으로 머리가 끌리고, 크로니는 눈가를 찌푸렸지만 입가는 미소를 짓고있다.(측면 상체 컷)

대사)크로니 : "그깟 마법이 뭐가 대단하다고! 철부지 십대가 나뉠 자리가 아닙니다!"

대사)크로니 : "아니면 백성들에게 그깟 사랑좀 받았다고, 진짜 황제라도 된 줄 아셨습니까?"

13,14컷) 이안의 웃음이 세어 나오고(입술쪽 익스트림 클로즈업), 이안이 가볍게 웃는다.(정면 클로즈업)(고결하고 귀품있게 웃음)

대사) 이안 : "크흠"

대사) 이안 : "아하하하하"

15컷) 이안이 정면을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다. (정면 클로즈업)(얼굴에 상처와 피)(이안의 눈빛이 금색으로 빛나는 것을 강조)

대사) 이안 : "부러웠던건가. 최초의 귀족 마법사인 내가?"

대사) 이안 : "아니면 능력을 인정받아 황제가 된 내가?"

16컷) 크로니가 당황하면서 화가난 듯한 표정을 짓는다. (클로즈업),  
대사) 크로니 : "이....이런...건방진..."

17컷) 크로니가 이안을 발길질 한다. (대각선 배치)(강하고 거친 느낌 효과)  
효과음) 이안을 때리는 소리 : '퍽', '퍽', '퍽'.  
대사) 크로니 : "어디 그 잘난 마법으로 이것도 막아보시지요! 왜? 못하시겠습니까?!"

18컷, 19컷) 크로니가 검을 뽑아(검 뽑는 장면을 클로즈업), 이안의 목 끝에 겨눈다. (로우 앵글샷)  
효과음) 검이 뽑히는 소리 : '스릉'  
대사) 크로니 : "왜. 그깟 구속구 때문에 이것도 못 막으시겠습니까?"

20컷) 이안의 웃는 입(측면 익스트림 클로즈업)  
대사) 이안 : "웃기지 않나? 당연히 귀족보다 천민의 수가 압도적이니 마법사 역시 천민출신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21, 22컷) 당황하는 크로니(클로즈업)  
대사) 크로니 : "그만 닥치시오...."  
대사) 이안 : "왜. 부끄럽나?"

23컷) 효과음이 먼저 나오고 그 아래로 크로니가 이안의 머리를 밟고있다. (로우 앵글 샷)  
효과음) 이안의 머리를 짓밟은 소리 : '쿵'  
대사) 크로니 : "알게 뭐랍니까? 나는 지금 이리 서 있고 그대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으니. 이것이 중요하지요."

24컷) 크로니의 칼 끝이 이안의 목덜미를 겨눈다. (측면 전신샷)  
대사) 크로니 : "이제 그만 편하게 해드리지요."

25컷) 크로니 쪽으로 복도를 뛰는 병사의 발이 보임 (익스트림 클로즈업)  
효과음) 병사들이 달리는 소리 : '척', '척', '척'.  
대사) 병사 : "크로니 님. 힐론공작에게 서신이 왔습니다!"

26컷) 고개를 살짝 돌린 크로니와 그 뒤에 병사가 서있다. (크로니 기준 클로즈업, 뒤로 병사가 서있는 것이 보인다.)  
대사) 크로니 : "...급한 일인가?"  
대사) 병사 : "네. 송구하옵니다"

27컷) 혀를 차를 크로니 (입술 쪽 익스트림 클로즈업)  
효과음) 크로니가 혀를 차는 소리 : '치!'

28컷) 뒤를 돌은 크로니가 밖을 나간다. (측면 풀샷)(이안이 무릎꿇고 있고, 크로니가 걸어 나가는 모습)(걸어나가는 소리)  
효과음) 크로니가 걷는 소리 : '뚜벅', '뚜벅', '뚜벅'.  
대사) 크로니 : "다행이군요. 잠시 세상에 작별이라도 하시죠. 이안숙부"

29컷) 고개를 숙인 이안, 지하 감옥의 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린다. (이안 기준 정면 전신 샷)  
효과음) 문이 닫히는 소리 : '광!!'

30컷) 지하감옥의 창문 밖으로 달과 구름이 보이고, 내부쪽에서 마력 색이 빛난다. (창틀을 대각선 샷으로 보이게)

31, 32컷) 한쪽 눈을 뜬 이안(정면 클로즈업)(컷 밖에서 나옴의 목소리와 효과음)  
효과음) 나옴이 이안의 족쇄를 푸는 소리 : '철그럭'  
대사) 나옴 : "이안님....."

32컷) 이안의 시각에서 이안을 어깨를 잡고 눈물을 흘리고 걱정하는 나옴의 모습이 보인다. (나옴을 바라보듯이 나옴의 얼굴을 클로즈업)(시아를 되찾는 과정처럼 흐릿하게)  
대사) 나옴 : "이안님. 제발...제발 정신 좀 차려주시시오"

33, 34컷) 이안과 나움의 얼굴을 각각 클로즈업(이안은 정신을 방금 되찾았기에 눈을 반만 뜬 무표정, 나움은 놀란 얼굴로 이안을 바라본다.)

대사) 이안 : "마법부 장관... 자네가 여긴 어떤 일인가..."

대사) 나움 : "이럴 때가 아닙니다. 서둘러 몸부터 피하시고,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이안 님, 부디 힘 좀 내주시길...."

35컷) 나움이 이안의 족쇄를 만진다. 족쇄쪽에서 빛이 나고, 나움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힘든 표정일 짓는다. (측면 폴샷)

효과음) 족쇄를 만지는 소리 : '철그럭'

대사) 나움 : "제가....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36,37컷) 이안이 눈을 돌려(눈쪽 익스트림 클로즈업) 다 까진 나움의 손을 바라본다(손쪽 익스트림 클로즈업)

대사) 이안 : "그만하게...나움..."

38컷) 당황한 나움의 이안을 바라보고 있다. (로우 앵글샷)

대사) 나움 : "무슨...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39컷) 이안의 말풍선이 하나씩 내려가고, 묶여있는 그림 컷까지 말풍선이 내려감, 당황한 나움과, 눈을 감고 미소를 띤 이안도 보임.(이안이 보이게 정면 전신 샷)(검은 배경부터 시작해서 컷을 길게)

대사) 이안 : "마력운용자에서 마법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대사) 이안 : "황제의 자리에 오른것도 자네들 덕이야."

대사) 이안 : "비록 내가 모자라 이리 되었지만,"

대사) 이안 : "계속 살아남아 바리엘 제국을 지켜주게,"

대사) 이안 : "고맙네...난 이제 그만하고 싶어..."

40컷) 울먹이는 표정의 나움(정면 클로즈업)

대사) 나움 : "아니요...안됩니다!

대사) 나움 : "이안님이 없으면 마법부에...아니요. 바리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대사) 나움 : "그러니 정신 차리시고, 제 마력을 받으십시오."

41컷) 울고있는 나움이 이안의 어깨를 붙잡고 고개를 떨군다. 이안은 은은한 미소만 띠고 있다.(측면 샷으로 둘다 보이게)

대사) 나움 : "죽으면...죽으면 다 끝이라구요...."

42, 43컷) 다짐한 듯한 표정의 나움이 이안의 양 볼을 감싸듯 잡는다. (상체 정면 샷) 볼을 잡힌 이안이 놀란 듯한 표정을 하고 있다.(상체 정면 샷) 둘 사이에 컷 테두리 없이 마법부 직속 별채의 그림이 있다.

대사) 나움 : "제 2황궁 중앙 보난 옆에 마법부 지국 별채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대사) 나움 : "이안 님이 처음 황궁에 들어와서 울고 싶을 때마다 찾았던 곳 말입니다."

대사) 이안 : "나움..."

44컷) 태연한 표정의 이안과 당황하는 나움의 뒷통수가 보인다 (데포르메 하여 가볍게 표현)

대사) 이안 : "...딱 한 번 울었는데"

대사) 나움 : "그래요. 어쩔거나요..."

45컷) (다시 진지하게) 컷 밖에서 걸음 소리가 들리고, 이안이 나움에게 말한다. (정면 클로즈업)(걸음소리를 컷 외각쪽에 배치)

효과음) 크로니의 걸음 소리 : '뚜벅뚜벅'

대사) 이안 : "벌써 온건가... 어서 걸계를 풀고 서둘러 몸을 숨기게,

대사) 이안 : "여기서 걸리면 자네도 위험해"

46컷) 나움이 진지한 얼굴로 이안에게 말한다. (측면 상체 샷으로 두명 다 보이게)

대사) 나움 :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안 님, 그쪽으로 가십시오., 가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대사) 이안 : "그게 무슨 말이지?"

47,48컷) 나움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무릎 아래 손을 모아(두 손을 익스트림 클로즈업) 마법진을 펼친다. (전신 하이 앵글 샷으로 마법진을 포함한 나움이 잘 보이게)

효과음) 마법진이 펼쳐지는 소리 : '좌아악!'

대사) 나움 : "....마법에 제 피를 섞겠습니다."



49컷) 이안이 나움에게 소리친다 (이안의 정면이 보이고, 그 앞에 나움의 뒷모습이 보이도록 로우 앵글 샷)(강하고 거친 느낌 추가)

대사) 이안 : "대답하거라! 나움!"

50컷) 나움이 눈물과 땀을 흘리며 마법을 구현하고 있다. (정면 전신샷)

대사) 나움 : "답이 오기를, 그쪽으로 오면 기회를 열어준다고 하였습니다."

대사) 나움 : "제 능력부족으로 어찌하여 그곳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서두르셔야 합니다."

51, 52컷) 마법진을 바라보는 이안의 눈 (익스트림 클로즈업), 마법진에서 피의 색깔 빛이 섞여난다.(마법진 일부 익스트림 클로즈업)

대사) 이안 : '이건...영속의 저주?. 설마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심연에 빠지려 하는건가?'

53컷) 나움과 이안이 서로를 바라보며 소리치고 있다. (측면 풀샷)

대사) 이안 : "나움! 시공간을 비틀었던 말인가?!"

대사) 나움 : "어쩔 수 없습니다. 이안 님, 그러니..."

대사) 이안 : "어째서...어째서!!!"

54컷) 열리는 지하감옥의 문끝이 보인다.(익스트림 클로즈업)

효과음) 문이 열리는 소리 : '끼익'

대사) 크로니 : "내가 이럴 줄 알았지"

55컷) 크로니가 열받은 얼굴로 서 있고, 그 뒤에 한 사내가 무표정으로 서 있다. (정면 풀샷)(크로니 뒤에 병사들도 배치)

대사) 크로니 : "마법부 새끼들, 다 숙아낸다고 해도 장관이라는 자가 이렇게 나오면 소용없는 일 아니겠나?"

대사) 크로니 : "뭐하는가. 어서 이 반란자를 끝내지 않고!"

56컷) 병사들이 나움과 이안 쪽으로 달려간다. (병사들의 뒷통수가 보이고, 나움과 이안이 정면으로 보이게 풀샷)

대사) 병사들 : "넵!!!"

57컷) 허공에 불꽃 하나가 보인다 (익스트림 클로즈업)

효과음) 불꽃이 튀는 소리 : '화륙'

58,59컷) 나움의 마법진에서 불이 퍼져 나가면서, 불타는 나움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나움 기준 로우 앵글샷)

이안이 나움을 향해 소리친다.(측면 클로즈업)

대사) 나움 : "으아아악!!!"

대사) 이안 : "안돼! 나움! 제발 멈춰주시게!!! 제발!!!"

60,61컷) 병사들이 충격에 의해 벽쪽으로 날아가고, 크로니는 코트로 몸을 가림. 위의 사내는 마법진으로 자신과 크로니를 막아주고 있음.

효과음) 병사들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 : '쿵', '과직'

대사) 병사들 : "으아아악!!!"

대사) 크로니 : "크흑...젠장..."

62컷) 이안의 독백이 배경 앞으로 나타남.

대사) 말풍선(1) : 황제가 되고서야 알았다. 이 왕관의 무게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보내는 신의의 무게였노라고.

대사) 말풍선(2) : 그리고 그걸 버티는 것 또한 내가 아니라 그들이었다고.

대사) 말풍선(3) : 내 목숨에는 미련이 없다. 하지만 소중한 사람이 죽는것 만큼은...

63컷) 눈물을 흘리는 이안이 고개를 들어 나움을 향해 소리치고 있다. (측면 클로즈업)

대사) 이안 : "제발...그만...나움...."

64컷) 몸이 불타는 중에도 나움은 밝게 웃으며 이안을 바라본다. 이안은 눈물을 흘리며 나움을 바라보고 있다.(측면 상체 샷으로 둘다 보이게)(이안과 나움, 둘다 눈물을 흘리고 있음)

대사) 나움 : "부디...저희를...바리엘을...지켜주시옵서서..."

65컷) 나움의 대사가 배경 앞으로 나타남.

효과음) 마법의 효과가 커지는 소리 : '화아아아악'

대사) 말풍선(나움): "지금까지 모셔서 행복했습니다."

\*스크롤을 살짝 길게, 시간이 좀 지난 것처럼 표현.

66컷) 이안의 목에 칼이 들어온다. (익스트림 클로즈업)(이안의 얼굴은 입술쪽만 보이고 목이 컷 중심에 오도록)

67컷) 불길히 휩싸인 지하감옥. 크로니가 이안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다. (측면 풀샷)(발 아래 마법진이 여전히 빛나고 있다.)(불길로 인해 밝아진 공간)

대사) 크로니: "끝이다. 이안..."

68컷) 절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이안 (측면 클로즈업)

대사) 이안(독백): "바리엘에 몸을 바친 대가가 이것인가. 신의하는 자도 잃으며, 목숨마저 잃는군"

69컷) 검을 휘두르는 크로니 (상체 정면샷)(검을 휘두르는 것을 표현)

대사) 크로니: "다음 생에는 태어나지 말거라"

70컷) 이안이 목이 베이는 것을 실루엣으로 표현 (측면 풀샷)

71컷) 쓰러지면서 흐려지는 이안의 시야, 크로니의 비웃음과 크로니의 뒤의 선 무표정의 남자가 보인다.(45도로 기울어진 시야로 흐릿하게 크로니와 무표정의 남자를 로우 앵글 샷)

대사) 이안(독백): '이제 정말 끝이구나'

\*흐려지던 시야가 검은 배경되고, 검은 배경은 스크롤을 내리면 흰색 배경으로 바뀜

### # 3. 브라츠가 뒤돌 정원 식탁

(식탁은 원형, 자리의 배치는 시계 방향으로 데르가 - 메리부인 -첼 - 이안 - 몰린 - 데르가 순으로)

- 브라츠가의 성은 프랑스의 '샹보르 성'과 같은 느낌을 준다.
- 뒤돌은 단순 평지보다는 베르사유 궁전 뒷 편의 공원 중 일부를 축소한 것 같이 꽃들로 장식된 화려한 느낌을 준다.
- 식사중인 식탁이기에 화려한 음식들로 구성, 프랑스 음식과 화려한 식기로 가득 채워져 있다.

72컷) 이안을 부르는 한마디가 보인다.(흰 배경에 말풍선만)

대사) 말풍선: "이안"

73컷) 정신을 차린 듯한 이안, 빙의 후의 모습으로 포크와 나이프를 반대로 쥐고 식탁에 앉아있다. (정면 상체 샷)(정신을 차린듯, 놀란듯한 표정)(콘티 시작 부분에 나왔던 장면)(포크와 나이프를 주먹으로 쥐고 있다,)

74컷) 당황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을 둘러본다. (정면 상체 샷으로 고개를 흔드는 것처럼 보이게)

효과음) 고개를 돌리는 효과음: '확'

대사) 이안(독백): '뭐...뭐지...? 내 손이 이상해?!'

대사) 말풍선: "이안!"

75컷) 자신을 부르는 소리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이안 (클로즈업)

76컷) 이안의 시각에서 맞은편 메리 부인이 이안을 연짙은 눈길에 입가는 억지로 미소지으며 내려다 보고 있다. 그 옆에 첼이 식기를 잡고 이안을 보며 비웃고있다. (상체 정면 샷)

77컷) 이안이 시선을 돌린다. (클로즈업)

대사) 이안(독백): '나는...죽었을 터인데...'

78컷) 데르가 백작이 식탁에 앉아 무표정으로 스테이크를 썰고 있고, 몰린 경이 데르가 백작의 옆에서 무언가를 이야기 하는 듯 자세를 취하고 있다.

79컷) 이안의 뒷통수, 이안의 앞에 첼, 메리부인, 데르가, 몰린 경이 앉아있다.(대각선으로 풀샷)(데르가는 조용히 식사, 메리부인은 이안을 내려보고 있고, 몰린은 데르가를 향해 무언가 말하는 듯한 자세, 첼은 이안 쪽을 보며 비웃고 있다.)(콘티 초반에 나왔던 그림)

80컷) 놀란듯한 이안의 표정으로 경직되어 있다. (상체 정면 샷)

81컷) 배경에 이안 독백만 추가.

대사) 말풍선(이안):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건가...?'

\*여기서 스크롤을 내리면 '변경백 서자는 황제였다.' 웹소설 제목으로 1화 끝.

## <2화 각색>

중점 1: 이안이 빙의한 이후의 상황이 어느정도 환경임을 설명해야함.

중점 2: 황제였던 이안이 앞으로의 상황을 잘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길 이안의 여유와 태도, 생각등으로 표현.

중점 3: 생각이 많고 대화가 많기 때문에 컷을 분할하여 각 인물의 표정들을 다채롭게 보여줄 수 있게 한다.

- 그렇지만 너무 많은 컷을 활용했다. 차후 수정 예정, 전체적으로 축소한다.

### # 1. 브라츠가 뒤뜰 정원 식탁

(식탁은 원형, 자리의 배치는 시계 방향으로 데르가 - 메리부인 -첼 - 이안 - 몰린 - 데르가 순으로)

- 브라츠가의 성은 프랑스의 '샹보르 성'과 같은 느낌을 준다.
- 뒤뜰은 단순 평지보다는 베르사유 궁전 뒷 편의 공원 중 일부를 축소한 것 같이 꽃들로 장식된 화려한 느낌을 준다.
- 식사중인 식탁이기에 화려한 음식들로 구성, 프랑스 음식과 화려한 식기로 가득 채워져 있다.

1컷) 이안의 뒷통수, 이안의 앞에 첼, 메리부인, 데르가, 몰린 경이 앉아있다.(대각선으로 풀샷, 모두가 보이게)(데르가는 조용히 식사, 메리부인은 이안을 부자연스러운 미소로 내려보고 있고, 몰린은 데르가를 향해 무언가 말하는 듯한 자세, 첼은 이안 쪽을 보며 비웃고 있다.)(1화 마지막에 나왔던 그림)

2컷) 이안이 놀란듯한 표정으로 경직되어 있다. (상체 정면 샷)

3컷) 배경에 이안 독백만 추가.

대사) 말풍선(이안): '이거 미치겠군....'

4컷) 배경에 말풍이 먼저 나타나고 그 아래 이안이 고개를 돌렸다. (상체 정면 샷)(인상을 살짝 찡그리며 날카로운 표정을 짓는다.)

대사) 말풍선: "이안!"

5,6컷) 메리 부인이 이안을 인상을 찡그리며 노려보고 있다. 그 옆에 첼이 이안을 바라보며 비웃고 있다.(상체 정면 샷)

대사) 메리 부인: "왜 그러니, 손님께 결례한다."

대사) 첼: "못 배운 티는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가 봅시다, 키크"

7컷) 둘을 바라보는 이안. (눈가를 익스트림 클로즈업) 컷 밖에서는 메리부인과 첼의 대화가 들린다.

대사) 이안(독백): '이게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대사) 컷바깥(말풍선 테두리 없이): "첼, 말을 가려서 하거라"

대사) 컷바깥(말풍선 테두리 없이) "네~알겠습니다. 어머니."

8, 9컷) 이안이 음식을 바라보며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로우 앵글 샷으로 이안과 이안 앞의 그릇이 보이도록) 이안의 앞의 식탁에 음식들이 차려져있다. (하이 앵글 샷으로 식탁의 음식들이 보이게)

효과음) 이안이 침을 삼키는 소리: '꿀꺽'

대사) 이안(독백): '배가...고프군...'

10,11,12컷) 우아한 손짓으로 식기를 잡아 스테이크를 썰고, 포크로 스테이크를 찌어 들어올리고, 입에 넣는다.(세컷 다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가까이 배치해서 연속된 동작처럼 보이게)(각 컷을 다각도로 배치, 반복 동작 같이 표현)(주변을 환하게 하는 효과를 줘서 기품이 느껴지는 효과를 준다.)

\*한번의 행동이 아닌 여러번 스테이크를 썰어 먹었다는 표현이 있어야 할 듯, 한번의 행동으로 몰린이 칭찬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됨.

효과음) 식기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 '잘그락'

효과음) 음식을 썰는 소리: '서걱'

효과음) 음식을 입에 넣는 소리: '하음'

13컷) 다시 스테이크 위에 포크와 나이프를 올린 이안, 기분좋은 미소를 띠고 있다. (상체 정면 샷)

효과음) 음식에 만족한 이안의 소리: '음~'

대사) 이안(독백): ‘감옥에서 이런건 기대도 못했으니.’  
대사) 이안(독백): ‘제대로된 식사는 오랜만인거 같군.’

14컷) 이안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눈치 챌듯, 눈길을 돌린다.(클로즈업)  
대사) 이안(독백): ‘뭐지?’

15컷) 메리 부인과 첼이 이안을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상체 정면 샷)(컷밖에서는 이안의 독백이 말풍선에 나타난다)  
대사) 이안(독백): ‘저들은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을 처음보는건가?’

16컷) 배경에 말풍선만 배치  
대사) 말풍선: “이안님. 식사 예절이 아주 훌륭하십니다,”

17컷) 당황한 듯한 이안이 몰린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눈가를 익스트림 클로즈업)  
효과음) 눈을 돌리는 소리: ‘확’  
대사) 이안(독백): ‘이런, 너무 식사에 집중했나. 혹시 게걸스러웠나?’

18컷) 몰린이 웃으며 이안쪽을 바라보고 있고, 데르가 백작은 무표정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 (상체 정면 샷)(이안의 시각으로 몰린과 데르가가 한컷에 보이게)  
대사) 몰린: “데르가 백작님의 훌륭한 가르침 덕일까요, 뛰어난 기품이시군요”  
대사) 데르가: “별말씀입니다. 몰린 경. 어쨌거나 브라츠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 당연하겠지요.”

19컷) 데르가 백작이 한쪽 눈을 날카롭게 떠서 이안쪽을 바라본다. (클로즈업)(주위는 조금 어둡게해서 데르가의 눈빛을 강조)  
대사) 데르가: “부디 황제께 말씀 잘 부탁드립니다.”

20컷) 데르가와 몰린의 대화 장면을 배경으로 이안의 뒷모습이 보인다. (전신 샷으로 이안의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보이도록)(위에서부터 말풍선이 있어, 많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표현)(배경은 어둡게, 이안만 밝게)  
대사) 말풍선(이안): ‘브라츠가? 여긴 브라츠가의 저택인가?’  
대사) 말풍선(이안): ‘그리고 황제는 나를 말하는 것인가?’  
대사) 말풍선(이안): ‘저들은 대체 무슨 대화를 하는 것인가?’

21,22컷) 이안이 한쪽 눈을 떠(클로즈업), 와인 글라스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확인한다.(글라스를 익스트림 클로즈업)  
대사) 이안: ‘왓을 뻔 했다. 지금 내 모습은 내가 아니야... ‘  
대사) 이안: ‘일단 상황을 지켜보아야 할것 같군...’

23컷) 몰린이 이안을 향해 미소지으며 질문을 한다. (상체 정면 샷)(말풍선을 위로해서 스크롤을 내리면 말풍선 보고, 이후 몰린을 보도록 배치)(뒷 배경을 어둡게해서 몰린이 미소짓고있지만, 의도가 있는 것처럼 표현)  
대사) 몰린) “이안 님. 요즘 철학을 배우신다고요.”

24,25컷) 언짢은 표정의 데르가가 한쪽눈을 떠서 이안을 바라보며 대답한다. 이안이 무표정을 띄고 있다.(상체 정면샷이며 두번째 컷은 데르가의 시각에서 이안을 바라보듯이 배치)  
대사) 데르가: “아직 어디서 말 꺼낼 수준은 안 됩니다.”  
대사) 데르가(독백): ‘멍청한놈. 그렇게 외우라 했지만, 역시 지 어미따라 미친한 평민이란건가;

26컷) 몰린이 미소짓고 양손을 펼치고 있다. (상체 측면샷)  
대사) 몰린: “학식이란 것이 다 그렇지요”  
대사) 몰린: “서로 의견을 부딪히며 단단해 지는 것 이랍니다.”

27컷) 몰린이 한쪽 눈을 떠서 데르가 쪽을 바라보고, 데르가도 한쪽눈을 떠 몰린을 바라본다. (둘다 정면 클로즈업이되, 눈을 돌려 서로를 바라보고 대치하듯이 표현)(몰린의 입가는 여전히 미소, 데르가는 당황한 표정)  
대사) 몰린: “열여섯이나, 이안님은 학교를 가지 않으셨다 하니...”  
대사) 데르가(독백): ‘중앙 행정부에서 괜히 평생을 버틴것은 아니란 건가...눈치 하나는 빠르군...’

28컷) 눈을 감으며 입가를 닦고 있는 이안의 모습이 보인다. 그 앞으로 데르가의 독백이 나타난다.  
효과음) 이안이 입을 닦으며 내는 소리: ‘음~’  
대사) 데르가(독백): ‘미친한 놈이 버락치기로 가르친 것은 다 까먹었을 터...’

29,30,31컷) 이안이 한쪽 눈을 떠 주변을 살핀다(익스트림 클로즈업), 몰린이 이안을 바라보며 웃고 그 뒤의 데르가가 이안을 한쪽 눈으로 이안을 주시한다. (둘이 한컷에 보이도록) 메리 부인과 첼이 당황한 표정으로 이안을 바라보고 있다. (둘이 한 컷에 보이도록)(29컷을 중심으로 30,31컷을 양쪽에 배치, 모두가 이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표현)(말풍선이 떨어지듯이 표현하여 이안의 생각이 깊어짐을 시각화)  
대사) 이안(독백): '나는 지금 처음 보는 소년의 몸으로 브라츠 백작저에 있다.'  
대사) 이안(독백): '나움의 시공간 마법이 관련되어있는 것이지만, 확증은 없다'  
대사) 이안(독백): '시공간 마법은 필수적으로 장소 제약이 걸린다. 즉 그곳으로 가야만 하는 것'  
대사) 이안(독백): '하지만, 남의 몸을 빌려 이동한 다는 건 들어보지도 못했다.'  
대사) 이안(독백): '그렇지만...'

32컷) 몰린이 걱정하듯한 표정으로 말한다.(상체 정면 샷)  
대사) 몰린 : "이안님?"

33컷) 이안이 미소짓는다.(로우 앵글 샷으로 이안의 상체를 보인다.)(이안 주위를 어둡게, 이안은 밝게)  
대사) 이안 : "아, 실례했습니다."  
대사) 이안(독백): '일단 지금은 이 상황을 넘긴다.'

34컷) 첼이 거만한 표정으로 양손을 벌리며 말한다. (로우 앵글 샷) 하지만 말을 끊고, 이안이 대답한다.(말풍선만)(첼 말풍선 앞에 이안의 말풍선을 두어서 이안이 말을 끊은 것처럼 표현)  
대사) 첼 : "제가 대신..."  
대사) 이안 : "저는 펠른 선생을 좋아합니다."

35,36,37,38컷) 이안이 환하게 웃고 있고(상체 정면 샷), 메리부인, 첼, 데르가 백작이 놀란표정으로 이안을 쳐다본다.(각기다른 각도의 로우 앵글로, 클로즈업)(이안컷을 중심으로 주변에 데르가, 몰린, 첼 컷을 주변에 작게 배치)(각각 '?!'를 넣어서 강한 당황을 표현)(이안 앞 식기는 가지런히 정리되어있다.)

39컷) 몰린이 감은 눈을 살짝 떴서 눈동자가 살짝 보이고, 입꼬리만 올린 표정으로 이안을 바라보고 있다. (상체 정면 샷)  
대사) 몰린 : "펠른...이란말이죠"

40, 41컷) 이안을 바라보는 몰린(데르가 시각에서, 이안이 컷 중앙, 몰린이 컷 외각에 배치하여 이안이 강조되도록), 데르가가 이안을 바라보며 당황과 짜증섞인 표정을 짓는다.(측면 클로즈업으로 주변을 어둡게 배치, 생각하는 듯하게 표현)  
대사) 데르가(독백): '펠른이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 이름이다.'  
대사) 데르가(독백): '모르면 모른다고 하든가. 어디서 헛소리를 지껄이는가?!'

42컷) 이안이 손을 벌리며 노래하듯이 설명하고 있다.(하이 앵글 샷으로 이안이 노래하듯 자세를 취한다.) 이안의 머리 뒤에는 늙은 노인이 궁정 로브를 입은 채 턱수염을 매만지고 있는 그림이 회상처럼 보인다. (그림은 양피지에 그려져 있으며, 책에서 본 것을 회상하듯이 표현)  
대사) 이안 : "예. 물론 교황청에서는 반기지 않겠지만,"  
대사) 이안 : "펠른 선생이 추구하는 인본주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대사) 이안 :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진리가 무엇인지 곰씹다 보면"  
대사) 이안 : "진정한 군주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으니까요."

43컷) 중심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이안을 컷 오른쪽에, 빙의 전 이안이 책상에 앉아 무언가 열심히 보고 있는 회상이 컷 왼쪽에 보인다. (설명하는 이안을 측면 정신샷. 미소를 띠고 있고, 빙의전 이안도 측면 정신샷으로 각각 오른쪽과 왼쪽 방향으로 묘사되어 데칼코마니가 되게 한다.)(빙의 전 이안은 귀찮다는 얼굴로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읽고 있고, 책상 위에는 책과 서류가 쌓여있다.)  
대사) 이안(독백): '순전히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대사) 이안(독백): '철학이니 인문이니 하는 것은 백성들의 삶보단 중요하진 않지만'  
대사) 이안(독백): '형식적으로나마 잘나가는 철학자를 한명 알아두긴 잘한거 같군'

44,45,46컷) 몰린의 대사 말풍선 아래로 이안을 놀란듯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몰린과 놀란듯한 데르가, 당황한 듯한 이안의 얼굴이 보인다.(셋다 정면 클로즈업)(몰린과 데르가를 좌우에, 이안을 아래쪽에 배치한다.삼각구도)  
대사) 몰린 : "펠른 경을 어찌 아십니까"  
대사) 데르가 : "예?"  
대사) 이안(독백): '음??'

46컷) 몰린이 웃는다.(정면 클로즈업)

효과음) 몰린이 웃는 소리 : '허허허허'

대사) 몰린 : "이런, 변경이라 중앙 소식이 늦을거라고 제가 오만한 생각을 품었군요."

47컷) 몰린이 데르가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고개를 숙인다. 데르가는 당황한 듯이 손을 젖는다.(정면 상체 샷으로 두명이 동시에 나오게, 몰린은 고개를 숙이면서도 한쪽 눈을 떠, 데르가를 바라본다.)

대사) 몰린 : "데르가 백작님과 이안 님 께 사과드립니다."

대사) 데르가 : "아니, 아니요..."

48컷) 몰린이 손을 공손히 모으고 필른에 대해 설명한다.(상체 측면 샷)(몰린의 뒤에는 밝은 표정의 학생이 단상에서 무언가를 말하는 듯한 자세로 서있다. 이건 로우 앵글 샷)(몰린은 어둡게, 필른을 밝게하여 필른에 대한 설명을 강조)

대사) 몰린 : "필른 경은 이제 막 성인식을 치른 호크먼 자작가의 막내아드님이랍니다."

대사) 몰린 : "연식은 어리시지만, 바리엘 대학의 수재중 수재이십니다."

대사) 몰린 : "얼마전 황궁의 학식 토론에서 인본주의를 거론하여 세간을 뒤집어 놓으셨지요."

49컷) 이안이 자신의 턱을 잡고 생각하듯이 필른에 대해 상상한다.(측면 클로즈업)(이안의 머리 위로 높은 필른과 젊은 필른이 좌 우로 배치되어있다.)

대사) 이안 (독백) : '필른 선생이 이제 막 성인식을? 연세가 백이 넘으셨을 터...'

대사) 이안 (독백) : '설마 나는 100여년의 시간을 거슬러 온 것인가?'

대사) 이안 (독백) : '일단 당황해서는 안되겠군...'

50컷, 51컷) 몰린과 이안이 서로를 바라보며 대화를 한다. 몰린은 눈썹을 올려 호기심 있어보이는 표정, 이안은 미소짓고 있다.(각 컷을 측면 클로즈업, 좌 우로 배치하여 대화하듯이 표현)

대사) 몰린 : "그래요...필른경의 철학이라...그런데 교황청에서 반기지 않을거라구요?"

대사) 이안 : "인본주의는 인간이 중심, 즉 신을 모시는 교황청에서는 달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52, 53컷) 몰린의 입술이 미소를 띠고(익스트림 클로즈업) 몰린이 고개를 들며 호탕하게 웃는다.(정면 클로즈업)(둘이 연속된 동작으로 보이게 한다.)

효과음) 몰린이 웃는 소리 : '허허허허'

대사) 몰린 : "브라츠 가의 새 아드님이 이리 총명하실 줄이야. 분명 황제님 께서도 좋아하실 겁니다."

54컷) 그리고 몰린이 이어서 말한다.(입가를 익스트림 클로즈업)(말풍선을 크게, 컷 아래쪽에 배치한다.)(몰린의 입술을 제외한 주위는 어둡게 해서 입술을 강조한다.)

대사) 몰린 : "그리고 분명 천려족도 반기겠지요."

55컷) 이안이 몰린의 말을 듣고 인상을 살짝 찡그린다.(클로즈업으로 웃은 체로 눈가쪽만 찡그린다.)

대사) 이안 (독백) : '천려족...'

대사) 이안 (독백) : '국경의 야만족 아닌가...'

대사) 이안 (독백) : '어째서 천려족이 나를 반긴다는 거지...'

56컷) 데르가가 이안을 보고 인자하게 웃으며 미소를 짓고 있다.(로우 앵글 컷)(데르가의 말풍선을 컷 위로,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데르가가 보이도록 배치)

대사) 데르가 : "이안, 나는 네가 평화의 상징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단다."

57컷) 이안이 어처구니 없다는 웃음을 짓는다.(하이 앵글 샷으로 클로즈업)(주변을 어둡게 표현하여 이안이 좋지 않은 생각을 했음을 강조)

대사) 이안 (독백) : '그런것인가...'

58컷) 이안이 테이블에 앉아 곰곰히 생각한다.(컷 중심에 이안이 앉아있는 모습이 측면으로 보이고, 컷 오른쪽으로는 식탁에 앉아있는 다른 이들이 보인다. 컷 왼쪽으로는 이안의 생각들이 보인다.)(이안 뒤에 말풍선들이 이안이 많은 생각을 한다는 것처럼 표현)(전체적으로 무채색으로 어두우나, 이안과 데르가만 색있어 나타난다.)

대사) 이안 (독백) : '천려족의 회친 유지의 대가로 보내질 서자, 그것이 지금의 '나''

대사) 이안 (독백) : '브라츠가가 야만족에게 화친의 유지를 한다는 것은 알고있었다.'

대사) 이안 (독백) : '저 악마는 자기 천자식을 보낼 수 없어 사생아를 보내려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 몸의 원래 주인인 거군'

대사) 이안 (독백): '황궁에서도 눈치는 봤을 것이고, 아이의 총명함으로 오는 외교적 억제력을 위해 시험하려 온 것이었나'

59컷) 이안이 쓴 웃음을 짓고 있다. 이안의 머리 뒤에는 데르가가, 데르가의 뒤에는 악마 모양의 그림자(실루엣)가 있다. (상체 정면 샷)

대사) 이안 (독백): '거들떠도 안 보던 아이를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지로 내모는 것인가.'

60컷) 이안이 밝게 웃으며 데르가의 말에 답한다.(정면 클로즈업)

대사) 이안 : "네, 아버지"

대사) 이안 (독백): '하지만 쉽게 당해주지는 않겠다. 데르가'

61컷) 데르가가 잔을 들어 올리고 기분나쁜 미소를 짓는다.(로우 앵글샷, 데르가를 중심으로 주변 인물들이 보이게)

대사) 이안 (독백): "자. 드시지요. 저의 사랑스러운 이안을 위해"

62컷) 식사를 하는 사람들 속, 이안이 두 팔을 꼭지껴 모아 입 앞에 두고 생각한다. (이안의 앞쪽에는 사람들이 식사하는 것을 어둡고 흐리게, 그 뒤에 이안이 색이 있고 밝게 표현하여 혼자 생각하는 것처럼 표현)

대사) 이안 (독백):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나, 우선 황궁 별채로 가야한다.'

63컷) 자세는 그대로 이안의 측면이 보여진다. (측면 클로즈업) 이안의 뒷통수로 나움의 얼굴이 회상하듯이 보인다.

대사) 이안 (독백): '나움의 마법을 확인할 유일한 방법, 나움의 마법 흔적을 찾아간다.'

대사) 이안 (독백): '하지만 여기서 중앙까지는 보름 이상, 심지어 곧 야만족에 팔려갈 몸인건가.'

64컷) 이안의 말풍선 하나만 배치

대사) 이안 (독백): '지금의 나는 영원처럼 달을 수 없는 세계인건가'

\*여기서 여백을 조금 길게, 시간이 조금 흐른 것처럼 표현한다.

65컷) 데르가 백작이 몰린에게 말하는 듯한 자세로 한손을 벌리고 있다.(로우 앵글 샷)

대사) 데르가 : "식사는 입에 맞으셨습니까?"

66컷) 몰린이 웃으며 대답하고, 뒤에 이안이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다.(컷 오른쪽에 몰린, 몰린 뒤에 이안이 보이도록 표현)

대사) 몰린 : "아주 훌륭했습니다. 황궁의 음식과 비견하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대사) 이안 (독백): '황궁?'

67,68컷) 몰린과 데르가가 대화하는 장면 (각각의 얼굴을 클로즈업 하여 한 컷에 배치한다.)(대사는 들리지 않고, 이안의 독백만이 들린다.)

대사) 이안 (독백): '황궁과 감히 비교하는 것이 가능한것인가. 표정은 일반적인 것 같은데...'

대사) 이안 (독백): '황궁의 권력이 그리 강하지는 않다는 것이 되겠군...'

69컷) 메리 부인이 미소를 띠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몰린이 그런 메리 부인에게 웃으며 감사인사를 한다. (식탁 전체가 보이도록 풀샷)

대사) 메리 부인 : "그럼 디저트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사) 몰린 : "고맙습니다. 백작부인"

70, 71컷) 메리부인이 고개를 돌려 첼과 이안을 미소지으며 바라본다. (상체 정면 샷), 첼과 이안이 메리 부인을 바라본다.(첼이 앞으로, 이안이 뒤로가게, 메리 부인의 시각에서 본 것처럼 배치)(첼은 언짢은 표정, 이안은 밝게 웃고 있다.)

효과음) 메리 부인이 고개를 돌리는 소리 : '휙'

대사) 메리 부인 : "첼, 이안. 어른들은 할 얘기가 있으니 옆방에서 다과라도 들고 있으렴"

대사) 이안 : "네, 어머니"

72, 73컷) 메리 부인이 미소를 짓지만 눈가쪽은 언짢은 듯 한 표정 (상체 정면 샷), 이안은 밝게 웃고있지만 뒤로 보이는 이안의 잔상은 비웃는 듯이 웃고 있다.)

대사) 메리 부인 : "고맙구나. 이안."

대사) 이안(독백): '천한 것에게는 고맙다는 인사도 힘들겠지.'

74,75컷) 이안은 눈길을 돌린다. (정면 클로즈업). 첼은 입술을 깨물고, 짜증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클로즈업)(첼에게 효과음을 넣어 무언가 참고 있는 것처럼 표현)  
효과음) 첼이 짜증내 하는 듯한 소리 : '크익...'  
대사) 이안(독백) : '저 놈은 짜증나서 죽을 것 같은 표정을 대놓고 보여주고 있지만 말이야.'

## #2. 저택의 복도

76컷) 첼을 앞으로, 이안이 뒤를 따라 걷는다. (하이 앵글 샷으로 두 아이는 작게, 저택 내부가 전체적으로 나오게 보인다.)(브리츠 가의 사치가 잘 보이도록 저택 안을 호화스럽게 표현)

77컷) 이안이 걸어가며 저택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정면 풀샷)(시선을 옆으로 돌려 주변을 보고 있는 것처럼)  
대사) 이안(독백) : '브라츠가가 이렇게 부유했었던가? 아니면 단순한 사치인 것인가?'

## #3. 응접실

78컷) 응접실의 길다란 테이블의 끝쪽에 이안과 첼이 마주보고 앉아있다. (응접실 내부가 보이고 중앙에 정문, 그 아래 테이블이 일자로 보이게 하이 앵글 샷)

79, 80컷) 첼과 이안이 의자에 앉아있다. (각 캐릭터당 1컷으로 좌우로 배치, 서로를 마주보고 있다, 전신샷)(첼은 다리를 꼬고 앉아있으며 기분이 좋지 않은 표정)(이안은 바르게 앉아있으며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음)  
대사) 이안(독백) : '붉은 머리에 볼록한 배, 저 애비를 꼭 닮았군...그에 반해...'

81컷) 옆에 배치된 거울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이안 (전신 샷으로 거울을 중앙에, 그걸 바라보는 이안 뒷통수를 왼편에 배치한다.)(문여는 소리와 함께 하인의 대사가 들린다.)  
효과음) 문이 열리는 소리 : '끼이익'  
대사) 이안(독백) : '볼론드의 압생트색 눈동자...어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미의 영향이 많은 듯 하군.'  
대사) 하인 : "첼님. 이안님. 다과를 올리겠습니다."

82컷) 들어온 하인이 테이블에 차와 쿠키를 세팅 해 놓았으며, 첼의 앞에 찻잔을 내려두고 있다. (하이 앵글 샷)

83컷) 하인을 때리는 '퍼억' 소리가 난다. (효과음만)(효과음 테두리는 맞는 느낌이 나는 강한 느낌의 테두리를 사용)  
효과음) 첼이 하인을 때리는 소리 : '퍼억!'

84컷) 하인을 때린 첼의 뒷모습이 보이고 첼 앞에 무릎꿇고 쓰러진 하인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하이 앵글 샷으로, 첼의 뒷모습을 어둡게 표현)  
(하인의 손이 빨갛게 되었고, 손 주변에 얹어진 주전자와 보이고, 차가 흘러나와 그 주변과 하인의 손을 적신상태)  
대사) 첼 : "건방지게 어디서 내 이름을 불러!"  
대사) 하인 : "죄...죄송합니다...소백작님."

85컷) 하인을 향해 눈을 부릅 뜬 첼(측면 풀샷을 대각선으로 배치, 하인과 첼, 이안이 모두 보이도록), 그걸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는 이안이 의자에 앉아있다.  
대사) 이안(독백) : '자신만이 유일한 혈통이라는 건가...예법이 맞기는 하지만...유치하군'

86컷) 소리치는 첼, 이안이 첼의 말을 끊는다. (소리치는 첼을 클로즈업)(첼의 말풍선 앞으로 이안의 대사가 보이도록하여 말을 끊은 것처럼 표현)  
대사) 첼 : "이제 어쩌려고! 이게 얼마지나..."  
대사) 이안 : "뒤틀리는 되었으니 나가서 손부터 식히게"

87,88컷) 붉어진 표정으로 이안을 바라보는 첼(로우 앵글 샷), 이안은 하인을 부축해주며 첼을 노려본다.(하이 앵글 샷)(부축 받는 하인은 공포에 질린 표정을 하고 있으면서 말풍선 없이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  
효과음) 하인이 하는 사과 : '죄송합니다...'

89컷) 첼과 이안이 마주보고 서있다. (전신 측면 샷)(말풍선을 좌우 끝에 지그재그로 배치, 한마디씩 주고 받도록)(첼은 짜증난 표정, 이안은 여유로운 표정)  
대사) 첼 : "뭐하는 것이냐? 형님께 말에 왜 끼어들어 이래라 저래라 하느냔 말이야?"  
대사) 이안 : "이런식으로 하인을 부리신다면, 곧 형님이 직접 해야하실텐데요?"  
대사) 첼 : "천한 핏줄 놈이...몰린경이 칭찬했다고 진짜 귀족이라도 된 줄 아느냐?"



대사) 이안 : "내가 귀족이 아니면?"  
대사) 첼 : "뭐... 뭐라고?"

90컷) 이안이 여유로우면서도, 당당한 미소를 짓는다.(상체 정면 샷)(배경이 조금 어둡고 압생트색 눈동자가 강조된다.)  
대사) 이안 : "형님이 친려쪽으로 팔려갈테지요"

91컷) 첼이 한손을 들어, 이안에게 싸대기를 때리려 한다. (상체 정면 샷)(그 앞에 이안의 대사가 보인다.)  
대사) 첼 : "이...이 건방진 놈이!"  
대사) 이안 : "여기서 제 얼굴에 환부라도 생기면..."

92컷) 손을 멈춘 한 첼과 계속 여유롭게 말을 하는 이안(측면 상체샷으로 둘이 한 컷에 나오게)  
대사) 첼 : "음..."  
대사) 이안 : "몰린 경이 어찌 생각할까요? 백작과 그 부인은?"  
대사) 이안 : "날 팔아먹으려 하는데, 아들된 도리로 협조는 못할망정 초라도 치려고 하시는 겁니까?"

93, 94컷) 억울한 듯한 표정으로 이안에게 불이 만져지는 첼(정면 클로즈업) 첼의 불을 두드리는 이안(정면 클로즈업)(좌 우로 배치, 서로를 마주 보듯이)  
대사) 이안 : "그러다 제가 사라지면 어쩌시려구요?"

95컷) 첼의 입가에 미소가 띠어진다.(익스트림 클로즈업)  
대사) 첼 : "흥...네가...?"

93, 94컷) 겁먹었지만, 기분나쁘게 웃는 표정의 첼(정면 클로즈업) 당황한 표정의 이안(정면 클로즈업)(좌 우로 배치, 서로를 마주 보듯이)  
효과음) 첼이 비웃는 소리 : '하하하!'  
대사) 첼 : "네 어미의 머리통이 잘려 시장통에서 공처럼 차이고 싶으면 어디한번 해봐!!"  
대사) 이안(독백) : '어미가 족쇄였구나...'

95컷) 검은 배경에서 이안이 슬픈 표정으로 몸을 끌어안고 있고, 그 뒤에 여인의 실루엣이 보인다. (상체 정면 샷)  
대사) 이안(독백) : '그래. 수많은 선택지 중 이 아이의 몸으로 들어온 연유가 분명 있을터...'

96컷) 첼이 손가락을 아래로 가리키며 소리 지르고 있다. (전신 로우 앵글샷)  
대사) 첼 : "납작 엎드리렴!"  
대사) 첼 : "그래야 네 어미와 함께 하루라도 더 목숨을 연명하겠지?"  
대사) 첼 : "시장통에 굴러도 그 더러운 몸뚱이는 티도 안나겠지만. 크흐흑"

97컷) 주변이 어둡고, 이안의 금빛 눈동자가 재빠르게 움직인다. (상체 정면 샷, 역동적 움직임)  
대사) 이안 : "어리석은 것아."

98컷) 이안이 첼의 머리채를 잡고 있다. 이안의 눈이 금빛으로 빛이 나고 있다.(측면 로우 앵글 샷으로, 둘의 모습이 모두 담기도록)  
대사) 이안 : "아무리 아이라 한들, 세 치 혀는 인생을 바꾸기에 그리 짧지 않다."  
대사) 이안 : "조심하지 않으면 잘릴 것이다."

99컷) 머리가 잡힌 첼의 어깨가 놀란듯이 올라간 뒷통수가 보이고, 그 뒤로 이안이 정면으로 보인다. 이안의 주위에 금빛 마력이 흘러나와 첼을 압도하고있다.  
(이안기준 상체 정면 샷)(첼에게 효과음 추가로 겁을 먹었음을 시각화)  
효과음) 첼이 겁먹은 소리 : '히이이익!!!'

100, 101컷)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줌을 지린 첼(하체쪽 하이 앵글 샷), 겁에 질려 눈물이 고여있다.(클로즈업)  
(얼굴과 하체부분을 컷 분할)  
효과음) 첼이 무릎꿇는 소리 : '쿵'  
효과음) 첼이 오줌 지리는 소리 : '쌔아아아악...'  
대사) 첼 : "아으..아..아으음..."

102컷) 여유로운 모습으로 미소를 띄고 있는 이안(로우 앵글 샷, 첼의 시각으로 이안이 내려보듯이)(주변의 마력이 연해진다.)

효과음) 이안이 한숨 내쉬는 소리 : '후...'  
대사) 이안 : '이런. 겁을 너무 주었나. 하인을 불러야...'

103컷) 돌의 모습 뒤로 정문이 열리며, 물린이 들어온다. (이안과 첼은 가까이 어둡게, 그 사이로 열리는 정문을 배치한다.)

효과음) 문이 열리는 소리 : '끼이익'  
대사) 물린 : "다과는 즐거이..."

104컷) 이안이 정문쪽으로 서둘러 눈을 돌린다.(눈쪽 익스트림 클로즈업)(고개를 돌리는 것을 역동적으로 표현)  
효과음) 이안이 고개를 돌리는 소리 : '획'  
대사) 이안(독백) : '이런!'

105, 106컷) 물린이 웃는 눈으로 있다가, 놀란 표정으로 바뀐다. (두 컷모두 클로즈업으로 연속된 동작으로)  
효과음) 물린이 놀란 소리 : '으음?!'  
대사) 물린 : "아니...이건..."

107컷) 물린의 뒷통수가 보이고, 그 앞에 첼이 무릎꿇고 울고 있다. 이안은 물린을 바라보고 있다.(물린의 뒷통수를 가까이 배치, 첼과 이안은 물린의 뒤에서 보듯이 표현)(이안의 독백은 컷 아래에 배치한다.)  
대사) 이안(독백) : '들킨건가...?'

\*여기서 스크롤을 내리면 '변경백 서자는 황제였다.' 웹소설 제목으로 2화 끝.

---